

일본가축개량사업단 수정란 은행가동

전문위원
농학박사 박신호

家畜改良事業團이 1992年度の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Embryo Bank』(受精卵 銀行)이 3月下旬부터 本格的으로 Start(시작)한다.

우량한 수정란을 事業團이 구매하여 보관하고, 수정란이 不足한 地域에 수요에 對해서 공급할 수 있는 '수정란은행'은 今後, 수정란 유통의 核으로서, 民間水準에서는 지금 하나의 수정란 이식기술의 普及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관계자 사이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 Embryo Bank는 事業團의 前橋(마에바시) 種牡牛센타(群馬縣前橋市)와 同一한 부지에 施設을 建設중 3月中에 完成하고 3月末부터는 가동한다.

이곳에는 事業團이 사들인 수정란의 저장기능과 수정란의 品質검사 기능을 갖는다. 또한 구매하는 生産地에서의 수정란의 채취나 동결기술을 확인한다든지, 수정란 이식의 수태성공을 향상을 위한 이식 기술자의 지도도 하게 된다.

이번에 가동하는 "Embryo Bank"는 肉用牛우량 수정란 이용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것이다. 肉用牛의 改良 増殖을 效率的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國內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事業의 중요한 목적이다.

肉用牛의 수정란은 縣에 따라서는 채취하여 남는 곳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縣도 있기

때문에 需給이 不均衡한 상태, Embryo Bank의 가동에 의해서 地域 流通이 進行되면, 이러한 것이 해소됨과 同時에 肉用牛의 改良, 증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사업단은 기대하고 있다.

受精卵의 流通은 "Embryo Bank"가 供卵中 飼養者로 부터 수정란을 구매하고 여기에 一定한 수수료를 붙여서 수란우飼養者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참조)

事業團에서는 5年째의 판매목표는 2千個로 잡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현재 東京·芝浦의 Bitech Center에 있어서 屠殺된 和牛암소의 卵을 이용한 凍結受精卵(體外受精卵)을 시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Embryo Bank 가동후에는 이곳에서 이 수정란을 공급하여 원활한 수정란의 공급판매를 行하고자 하고 있다.

Bitech Center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정란은 特定の 종모우의 정액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今後에는 종모우도 살 사람 의 要求에 응해서 바꾸도록 할 예정이며 수정란 은행에서 유통되는 절반정도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정란을 가지고할 생각이다.

購入·販賣하는 수정란은 流通이 전제이기 때문에 基本的으로는 동결수정란이다. 수정란의 동결방법에 대하여는 직접(direct)法과 단계(step)法등 몇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조건은 달지 않을 豫定이다.

利用者에게 있어서의 關心事는 受精卵의 買入 및 販賣料金인데, 事業團側에서는 너무 높지 않게 하려는 意向이지만, 우수한 혈통의 種모우와 암소의 수정란은 公團우사양자로부터의 希望價格이 높아질 수도 있으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또한 수정란은 流通체제 정비사업에 의해서 公團우의 사양자에 대해서는 「수정란 채취장려금, (4万, 7千円)」을 수정란 값이외에 支拂한다. 수란우를 사양하는 사

람에게 대하여도 「수정란 이식 장려금(1万 5千円)」을 交付하게 된다.

酪農家들에 있어서는 이 「수정란은행」에서 젖소의 수정란도 취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우선은 肉用牛만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나 사업단에서는 酪農家들로부터의 요망이 높아지면 젖소도 취급하고자 하고 있다. 또 海外에서 생산된 유우의 동결 수정란의 수입, 판매도 검토 과제로 하고 있다. (全酪新報)

Embryo Bank (受精卵流通體制整備事業)

